



3면

"중소·벤처 역량 강화 지원할 것"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음 2월 12일) 제321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완주 도약, 전북성장으로 확산토록 혁신하자”

김관영 도지사, 시·군 순회방문 - 완주

완주군, 자치조직권 확대 '시 승격' 특례 부여 등 건의
김 지사, 떡메마을 등 방문·귀농귀촌협의회와 대화

완주군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함께 '더 특별한 전북시대, 완주군과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도정과 군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2일 오전 완주군을 방문하고 1일 명예 완주군수로 위촉돼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청원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간부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완주군은 지난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어느 때보다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며 "민생경제 기적을 이루기 위해 주민 참여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1조3천억 원 규모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환경부 주관 400억 원 규모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완주군은 기업유치와 신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코밸패션 등 굵직한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고, 응치전적지의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승격이 됐다"며 "더 특별한 전북 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청원과의 만남에서 "완주군이 한류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서고 있으며, 민생경제 기적 프로젝트도 빼놓을 수 없다"며 "이제 완주는 탄소중립과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어 완주의 도약을 전 전북성장으로 확산하는 게 과제인 만큼 함께 혁신하고 함께 도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시 승격 특례 부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특례 부여 △용진 살경~두여 도로개설 사업 △2차 공공기관 전북 혁신도시 우선 배치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완주군은 인구증가 등 도시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완주시 승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법상 특례 규정 명시가 필요하며,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제도 개선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특례부여가 요청된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후 완주 떡메마을과 삼례문화예술촌을 잇따라 방문했으며,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갖는 등 지역민과 긴밀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시·군 순회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가 2일 완주군을 찾았다. 사진은 김관영 도지사가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도원들과 완주 떡메마을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떡메마을 방문에서 "근로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렵게 애정과 힘을 쏟아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직접재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완주군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도민과의 대화에서 "완주군은 전북에서 귀농귀촌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며 "지역소멸의 대안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스마트팍 지원 등과 연계해 청년들의 귀농귀촌이 유인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

조를 만들어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을 꽃피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날 "민물이 움트는 생명의 계절에 김관영 지사께서 완주군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도정의 목표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완주군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 공모사업 선정

도, 185억 확보... 2027년까지
김제시 하수처리장에 구축

전북도는 환경부의 '2023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85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처리 곤란한 유기성 폐자원(음식물 하수슬러지)을 단일시설에서 통합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곳이다.

이번 선정으로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장에 2027년까지 사업비 324억원(국비 185, 도비 42, 시비 97)을 투자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이 구축되면 기존에 각각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던 김제시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루 메탄가스 6.133Nm³도 생산, 이중 2.108Nm³은 시설 내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료전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는 판매함으로써 연간 15억원의 수입 발생도 예상된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장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바이오가스 생산을 극대화해 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7일 '전북도 창업정책 한마당'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조센터)는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라북도 창업정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지사 등 도내 대학 창업지원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북창업기관협의회 소속 30개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사업 설명은 △사업화 지원, △기술 산업 분야별 지원, △자금 지원 등 총 3부로 나눠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이에, 도내 창업자들의 정보 감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한 지역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올해 계획에는 전북도 주력산업 개편내용과 주력산업별 기업육성방안, 지역중소기업 생태계 육성방안, 인구소멸지역 중심의 소외 없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시군구 연구 산업육성 방안 등이 담겼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북테크

농생명바이오 등 3개 주축·수전해수소생산 등 2개 미래신산업으로 개편

전북도, 올해 지역산업진흥계획 확정

3개 주축산업, 도내 중기 대상 올해부터 추진

미래신산업, 정부 예타 절차 걸친 뒤 2025년부터

노과크와 함께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총 3차례에 걸친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내용을 반영해 전북도에 특화된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4개의 주력산

업(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이 도내 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고려해 3개의 주축산업과 2개의 미래신산업으로 개편됐다.
3개 주축산업은 농생명바이오, 특수

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다.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2개 미래신산업은 수전해수소생산,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다.

올해 3개 주축산업 예산은 총 211.6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은 120.06억원, 기업지원 등 비연구개발(R&D) 예산은 73.18억원, 기타 18.40억원이다.

3개 주축산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미래신산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절차를 걸친 후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기업지원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성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미래 신산업 지원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민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